



3년 임기 마무리하는 이을성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회장

그동안 협회장으로서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를 이끌어온 이을성 회장이 어느덧 퇴임을 앞두고 됐다. 3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회장을 만나 퇴임을 앞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회장은 “3년간 함께 뛰며 고생한 집행부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지난 3년 임기의 소회를 밝혔다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및 시행이 가장 보람”

“3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매 순간이 긴박했고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이 회장의 말처럼 3년간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움직이며 보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성과 중에 이 회장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이 회장은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2018년 2월 제정되어 9월 시행된 일을 꼽았다. 이 회장은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융합산업이 국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성과와 영광이 있으면 그만큼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다. 이 회장의 3년간 임기 안에도 분명 아쉬움이 있었다. 이 회장은 ‘광학세계’가 잠시 휴간을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한 k-light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부분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1989년부터 발행되어 30년이란 긴 시간동안 회원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학세계’는 ‘k-light’로 이름이 바뀌면서 잠시 발간이 되지 못했다. ‘k-light’는 산·학·연의 유대강화 및 질적 향상과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발 빠른 기술동향과, 정책을 회원사에게 전하고자 한국광학회, 한국광산업진흥회와 MOU 협약을 맺고 2018년 1월부터 광학전문 매거진을 목표로 창간되었지만 발간이 멈추게 됐고, 다시 ‘광학세계’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회장은 “광학세계가 잠시 휴간되어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복간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그동안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협회를 대표하는 매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기 집행부 역할 기대... 당분간 회사에 집중하고파”

후임 협회장을 비롯해 차기 집행부에게 바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이 회장은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젊고 패기 있는 구성원으로 세대교체 되어 역동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회장은 “광융합산업진흥법의 발효에 따라, 적극 대처하여 우리 회원사들의 사기진작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베트남 공장의 현지화에 좀 더 신경 쓰고 싶다”며 해성옵틱스 경영에 집중할 뜻을 밝힌 이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협회에 대한 애정만큼은 아직 남아 있는 듯 했다. “북한산 인수봉에 올라가 임기 3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협회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싶다”는 이 회장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울성 협회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광학 관리이사, 관리총괄, 해성옵틱스(주)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협회장, 한국광학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